

마로



2011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개막

특집 · 2011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 인도 현대연극 <푸네 하이웨이>
<수궁가>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 인터뷰
· 중국 발레 <마지막 황제>
미르얼굴 · 9월 <사랑방 음악회> 이용구

체코 프라하국립극장
<마크로폴로스의 비밀>

국립극장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2011 09 September



장엄한 음악과 의상, 무대미술, 로버트 윌슨의 연출은 차페크의 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한다.

체코의 국민작가 카렐 차페크



85년 전 이미 한국에 소개된 그의 작품

1920년대 해외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젊은 작가인 카렐 차페크(1890~1938)의 작품이 큰 성공을 거두었고 동아시아 지역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로봇'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한 차페크의 가장 유명한 희곡 『R.U.R.(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은 1920년 체코어로 출판된 후 3년 만에 일본어로 나왔는데, 당시 한국의 작가, 평론가 등 인텔리계층 대부분은 일본문화를 수용하고 있었기에 차페크의 작품 역시 한국에 곧 소개되었다. 차페크는 한국 평론가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차페크에 관심을 보인 작가 중에는 소설가 이광수도 있다. 그는 1923년 『R.U.R.』에 관한 기사를 처음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했다. 2년 뒤 소설가이자 문학 평론가인 김기진은 동아일보에 차페크에 관한 두 편의 글을 기고했다. 차페크의 희곡 『R.U.R.』은 『개벽』에 박영희의 번역으로 네 번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이는 체코 희곡은 물론 서구 희곡 중에서도 한국어로 소개된 최초의 작품이었다. 연극평론가 김우진은 1926년 『구미극작가론』에 차페크를 소개하고 그의 희곡을 한국 무대에 올리기를 원했으나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1928년 차페크의 『곤충의 생활(The Insect Play)』의 한국 공연을 준비했지만 공연이 현실화 되지는 못했다.

그후 차페크는 반세기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48년 이후 공산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류는 단절되었고 1970년대 초에 와서 차페크의 반전드라마 〈어머니〉가 한국무대에 다시 등장했다.

이후 차페크의 『R.U.R.』이 다시 번역·출판되었고 최근 10여 년간 『도롱뇽과의 전쟁』, 『호르두발』, 『유성』, 『평범한 인생』 등 차페크의 다양한 책들을 한국 서점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올 하반기에는 『마크로폴로스의 비밀』을 포함해 세 작품 이상의 차페크 희곡이 출판될 예정이다.

(글_아로슬라브 울샤 주한 체코공화국 대사)



『도롱뇽과의 전쟁』 표지.



차페크의 대표작 『R.U.R.(로숨의 유니버설 로봇)』